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에 '948억' 투입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 | 승인 2024.05.03 05:44

의료기관별 혁신계획 평가해 차등 지급



서울의료원 전경(사진 제공: 서울의료원).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 경영혁신을 위해 948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 대상은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

그룹	등급	기관수	기관당 지원금액	대상기관
1그룹 (300병상 이상) <7개소>	A	1	32억 원	서울
	B	2	24억 원	인천, 군산
	C	3	20억 원	부산, 홍성, 대구
	D	1	16억 원	청주
2그룹 (200~299병상) <19개소>	A	2	25억 원	남원, 안성
	B	7	19억 원	서산, 공주, 이천, 김천, 파주, 마산, 서귀포
	C	7	16억 원	의정부, 충주, 안동, 천안, 순천, 포항, 원주
	D	3	13억 원	목포시, 제주, 성남시
3그룹 (199병상 이하) <9개소>	A	1	19억 원	포천
	B	3	15억 원	강진, 영월, 수원
	C	3	13억 원	속초, 삼척, 울진군
	D	2	11억 원	진안군, 강릉

지방의료원 35개소는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눠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다.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적십자병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

등급	기관 수	기관당 지원금액	대상기관
A	1개소	14억 원	서울적십자
B	3개소	9억 원	인천적십자, 상주적십자, 통영적십자
C	2개소	5억 원	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지원규모는 총 948억원으로 지방의료원에 876억원, 적십자병원에 72억원 각각 지원된다.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원을 기관별 최대 32억원에서 최소 11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총 282억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